

당위적 통일론과 위계의 일상

김준태와 하종오의 통일시를 중심으로

이상숙*

이 논문은 김준태와 하종오의 시에 나타난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단과 통일 담론은 1970~1980년대 민족문학, 민족문학과 깊은 연계성을 보이는데 당시 대표적 민중시인이었던 두 시인의 시에 그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인식에 대한 두 시인의 시적 응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두 시인의 시에서 억압받는 민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유신과 신군부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민족은 민중, 농민, 노동자의 죽음으로 표현되었다. 광주민중항쟁으로 폭발한 민중의 힘이 1980년대 후반의 통일담론으로 이어지지만 진영논리와 결합된 담론으로서의 통일인식은 관념적인 지향과 선언의 한계를 보이며 당위적 통일론을 반복하는 전형적 통일을 양산했다.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탈북자가 증가하는 1990년대 이후 통일이 현실적 과제로 구체화되는 오늘날에 두 시인의 시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김준태는 민족애와 형제애를 기반으로 하는 당위적 통일론을 반복하고 있으며 하종오는 경제적 차이로 위계화되는 남북, 남북 주민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자신의 시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주제어: 통일, 분단, 김준태의 시, 하종오의 시, 북한, 북한 주민, 시혜적 자세, 당위적 통일론

* 가천대학교 리버럴아츠칼리지 부교수.

1. 서론

이 논문은 김준태와 하종오의 시를 통해 우리 시에 나타난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9년에 등단한 1948년생 김준태와 1975년 등단한 1954년생 하종오는 1970~1980년대 대표적인 민중시인이었다. 4.27 관문점 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오늘날까지 두 시인은 ‘통일’을 중요한 시적 주제로 견지하고 있다. 분단과 통일 담론은 1970~1980년대 민족문학, 민중문학과 깊은 연계성을 보이는데 당시 대표적 민중시인이었던 두 시인의 시에서 그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인식에 대한 두 시인의 시적 응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시적 성취나 양적 풍부함에 있어 두 시인은 독보적이어서 이들 시에 나타난 분단과 통일을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분단과 통일의 의미와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1970~1980년대는 정권과 통치세력이 분단을 불모로 억압했던 민주화에 대한 농민, 노동자의 열망이 높았던 시기이며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분출된 민중의 각성과 의지가 통일담론으로 비약하는 시기였다. 두 시인의 ‘분단’과 ‘통일’ 담론 또한 그 시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분단과 통일담론은, 민족의 모든 현실을 억압하는 분단의 비극을 그려내는 것, 그것을 끝장내는 분단의 극복이 곧 통일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다소 도식적이고 관념적인 통일 인식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소련 연방 해체와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현격히 벌어진 남북의 경제 상황과 ‘고난의 행군’으로 발생한 대량탈북 등 달라진 남북의 상황은 통일인식도 변화시켰을 것이다. 2018년 4.27

관문점 선언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 즉 공동경비구역 무장해제, GP 해체, 철도 연결과 같은 남북에 구체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SNS 제안으로 하루 만에 성사되었다. 이렇듯 통일은 매우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서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남북, 분단, 통일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통일의 의미가 달라졌듯 오늘날의 통일시 또한 깊이 있는 통찰과 형상화로 인식적 미학적 전위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김준태는 1969년 『전남일보』, 『전남매일』 신춘문예와 월간 『시인』을 통해 등단했다. 첫 시집 『참깨를 털면서』(창비, 1977)를 펴낸 이후 다수의 시집, 산문, 평론집 등 활발히 활동했다.¹⁾ 1980년 광주에서

1)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한마당, 1981), 『국밥과 희망』(1984, 풀빛), 『넋통일』(전예원, 1986), 『불이나 꽃이나』(청사, 1986), 『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실천문학사, 1988), 관화가 홍성담과 함께 펴낸 관화시집 『오월에서 통일로』(빛고를 출판사, 1989), 『칼과 흙』(문학과지성사, 1989), 『통일을 꿈꾸는 슬픈 색주거』(미래사, 1991), 『저 혼자 퍼덕이는 이 가슴은』(북토피아, 1994), 『꽃이 이제 지상과 하늘을』(창작과비평사, 1994), 『지평선에 서서』(문학과지성사, 1999), 『형제』(지만지, 2012), 『발시』(문학들, 2014), 『달팽이 뿔』(푸른사상, 2014), 『발시, 강낭콩』(모악, 2018),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도서출판 b)을 펴냈다. 산문집 『시인은 독수리처럼』(한마당, 1986), 평론집 『5월과 문학』(남풍, 1988), 『김남주론』(광주, 1988), 소설 『베트남 기획』(내일을 여는 작가, 2000), 번역서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팁 오브라이언, 한얼미디어, 2004) 등 시와 산문, 평론, 번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활동을 보였으며 광주항쟁 시집이 *Gwangju, Cross of Our Nation*(D. McCann 옮김, 한스미디어, 2014)으로 영역되었고 최근에는 일역 시집 『光州へ行く道』(김정훈 옮김, 風媒社, 2018)이 일본에서 출간되었다. 통일시선집 『백두산아 훨훨 날아라』(글누리, 2007), 김대중 추모시집 『님이며, 우리를 모두가 하나되게 하소서』(화남출판사, 2009), 관문점 선언 기념

직접 5.18 항쟁을 겪은²⁾ 이후 ‘광주’는 김준태 시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광주에서 본 죽음, 공동체, 분노, 민중의 힘, 사람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꼽은 ‘생명, 평화, 통일’³⁾이라는 김준태 시 핵심 주제의 요소이다. 김준태 시에 대한 평가는, 농민, 민중의 현실을 구체적 시어로 표현한 시,⁴⁾ 5월의 시학을 구현하는 시,⁵⁾ 분단의 비극과 모순 그리고 통일의 염원을 노래한 통일시,⁶⁾ 생명의 시⁷⁾로 요약되고 농민과 민중의 삶을 짚치게 표현하여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민중시인, 리얼리즘 시인이라는 평가는 공통적이다.

하중오는 1975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여 1981년 첫 시집 『벼

통일시선집 『도보다리에서 울고 웃다』(작가, 2018)를 엮었다. 5.18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 2) 그는 평론집 『5월과 문학』에서 ‘12일간의 현장목격日記(1980.5.16.~1980.5.27.)’로 기록했다.
- 3) 김준태, “시인의 말,”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도서출판 b, 2018), 5쪽. “내 시의 화두는 생명과 평화와 통일 그것들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 4) 조태일, “민중언어의 발견,” 『창작과비평』, 제23호(1972), 81~94쪽; 오창은, “1970년대 ‘환유적 시론’에 대한 연구: 정희성과 김준태 시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0권 2호(2002), 213~231쪽.; 류찬열, “정직의 시학: 김준태론,” 『우리문학연구』, 제30호(2010), 291~314쪽.
- 5) 이항직, “5월시의 사회적 형성,” 『현상과 인식』, 제75호(1998); 전동진, “오월의 시학 시론(試論) 연구: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3호(2013).
- 6) 조태일, “발문,” 시집 『참깨를 털면서』 발문(창작과비평사, 1977); 나종영, “민족과 대지를 온몸으로 노래한 순결의 시,” 시집 『칼과 흙』 발문(문학과지성사, 1989); 이동순, “분단시대 시의 꿈과 정치적 신화,” 『창작과비평』, 제65호(1989); 이상숙, “김준태의 시에 나타난 ‘통일 담론,’” 『우리문학연구』, 제63집(2019).
- 7) 김치수, “고향의 의미,” 시집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 해설(한마당, 1981); 김주연, “비생명 시대의 생명: 김준태의 농민시를 읽으며,” 시집 『칼과 흙』 해설(문학과지성사, 1989); 김진희, “밭, 시와 역사의 지평,” 시집 『지평선에 서서』 해설(문학과지성사, 1999); 김명인, “소멸의 길과 생명의 꽃,” 『문학과사회』, 제29호(1995).

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를 출간한 후 다수의 시집과 동시집 그리고 동화, 극시집 등을 펴냈다.⁸⁾ 농민, 노동자의 삶을 그린 시들은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노동시장과 노동자 문제로 확대된다. 한국에 입국한 이주 노동자와 이주여성, 제3국의 북한 노동자, 탈북노동자, 탈북여성, 통일 한국의 남북한 주민에 대한 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스스로 탈분단 ‘계열 시집’으로 명명한 『남북상징어 사전』, 『신북한학』, 『남북주민보고서』와 함께 『세계의 시간』에서는 탈북자, 통일 한국에 대한 상상을 보여 주었다. 『겨울 촛불집회 준비물에 관한 상상』(도서출판 b, 2017), 『제주 예멘』(도서출판 b, 2019) 등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리얼리즘 시인의 면모를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리얼리즘 시인 하종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국적 다문화 주체들의 타자화된 현실을 보여 주며⁹⁾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와 노동자를 사고한다는

8) 『사월에서 오월로』(창작과 비평사, 1984), 『분단동이 아비들하고 통일동이 아들들하고』(실천문학사, 1986), 『국경없는 공장』(삶이보이는창, 2007), 『아시아계 한국인들』(삶이보이는창, 2007), 『입국자들』(산지니, 2009), 『제국: 諸國 또는 帝國』(문학동네, 2011), 『초저녁』(도서출판 b, 2014), 『신강화학파』(도서출판 b, 2014), 『신강화학파 12분과』(도서출판 b, 2016), 『웃음과 울음의 순서』(도서출판 b, 2017), 『겨울 촛불집회 준비물에 관한 상상』(도서출판 b, 2017), 『신강화학파 33인』(도서출판, 2018), 『죽음에 다가가는 절차』(도서출판 b, 2018), 『제주 예멘』(도서출판 b, 2019) 등의 시집이 있다. 동시집 『도시동네』(현복스, 2018), 『우리동네』(현복스, 2019), 시극집 『어미와 참꽃』(황토, 1989), 동화 『도요새』(문학동네, 2002) 등이 있다.

9)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 『국제어문』, 제44집(2008); 류찬열, “하종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1집(2011); 류찬열, “분단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8집(2015); 백지윤, “한국현대시의 다문화 수용 양상: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4.2); 박윤우,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가치 인식 방법 연구,” 『구보학보』, 제18집(2018).

평가¹⁰⁾를 받는 동시에 입국노동자들,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고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계¹¹⁾라는 평가 또한 제기된다.

두 시인의 시에 나타난 분단, 통일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각 시인의 개별 연구 중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두 시인을 나란히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애초에 한국현대시에 드러난 분단과 통일에 대한 통시적 언급이나 연구가 많지 않다. 통일, 통일문학을 주제로 한 잡지 기획이나 평론들은 당대 작품이나 담론 위주의 글이었고 시사 전체를 통틀어 우리 시에 나타난 ‘통일’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글은 많지 않다. 『통일과 문학』 2008년 여름호에서는 “한국현대시 100주년 ‘통일시’ 조명”이라는 제하의 좌담이 마련되었는데 임현영, 이근배, 이상숙은 남과 북의 시사를 아울러 통일시를 개관했다. 좌담의 성격상 작가나 작품에 대한 구체적 평가보다는 남과 북의 통일시를 나란히 두고 그 흐름과 방향을 정리했다.¹²⁾

연대별 통일시를 골라 펴낸 시선집¹³⁾의 해설이나 발문(跋文)에서는

-
- 10) 고명철, “제국(諸國)의 공존, 제국(帝國)의 부재,” 『제국: 諸國 또는 帝國』 해설(문학동네, 2011); 장성규,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탈분단시의 가능성,” 『남북상징어사전』 해설(실천문학사, 2011); 노지영, “탈분단 연작시집 3부작, ‘너나들이’의 이야기시,” 『남북주민보고서』 해설(도서출판 b, 2013); 차성연, “지구 공통의 시간, ‘탈분단’을 상상하는 ‘차이’의 시간,” 『세계의 시간』 해설(도서출판 b, 2013).
 - 11) 박지혜, “하종오의 시 세계에 나타난 다문화와 그 인식의 한계,” 『철학과 문화』, 23집(2011); 이상숙, “하종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 형상,” 『여성문학연구』, 제46호(2019); 이상숙, “하종오 시에 나타난 통일, 북한, 북한주민,” 『아시아문화연구소』, 제49집(2019).
 - 12) 임현영·이근배·이상숙 좌담, “한국현대시 100주년 ‘통일시’ 조명,” 『통일과 문학』, 제2호(2008), 104~123쪽.
 - 13)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위음, 『말하라 백두산 천지여』(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7); 김재홍·홍용희 위음, 『그날이 오늘이라면』(청동거울, 1999); 이기형 위음, 『그

간단하나마 통일시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이기형의 시선집 『그날의 아름다운 만남』¹⁴⁾은 시의적 기획이나 원고 청탁에 의한 시가 아니라 이미 간행된 개인 시집에서 시를 고른 시선집으로 선정 시인 수, 작품, 주제의 다양성과 충실성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함주 출신 실향민으로 통일의 열망을 담은 시집 『망향』(시인사, 1982), 『삼천리통일공화국』(황토, 1991)을 펴낸 이기형은 수년간 기획하고 모은 통일명시 100편과 그에 대한 감상과 해설을 실어 2000년 6.15 공동선언에 화답하듯 통일 주제 시선집을 펴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년대로 나누고 북한시와 행사시, 2000년대 전반기까지 망라하여 작품의 양과 주제의 다양성, 문학사와 연결된 균형 잡힌 평가까지 갖춘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선집이다. 시대별 통일시의 특징과 방향을 논구하기보다 많은 시편을 소개하고 해설한 시선(詩選)이지만 우리 시사의 통일시를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만하다.

김준태가 엮은 『백두산아 훨훨 날아라』(글누림, 2007)는 신석정, 백석, 이용악의 시에서부터 신동엽, 문익환, 북한 시인 조기천, 리찬, 오영재까지 포함하여 한반도의 땅 곳곳을 통일 염원의 시각에서 제시했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기념 통일시집 『도보다리에서 울고 웃다』에는 남북, 해외의 시인과 미술인 214명이 판문점 선언에 화답하는 시와 미술 작품이 실려 있다. 판문점 선언의 흥분에 걸맞게 참여 작가와 작품 수와 다양성은 확장되었으나 수록된 시에 국한하여 보면 행사

날의 아름다운 만남』(살림터, 2000); 김광섭 외, 『어서 너는 내게로 오라』(월간 문학 출판부, 2003); 김준태 엮음, 『백두산아 훨훨 날아라』(글누림, 2007); 김운환·박희호·송문헌·이적 외, 『분단과 통일시』(화남, 2007); 김준태 외, 『도보다리에서 울고 웃다』(작가, 2018).

14) 이기형 엮음, 『그날의 아름다움 만남』(살림터, 2000).

시 특유의 전형성이 두드러져 통일시 전체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김규동, 이기형과 같은 실향민 세대 문학인들에게 ‘분단’은 가족과의 이별이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감정적인 슬픈 현실이고 ‘통일’은 그리운 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칠까 두려운 절박한 소망이다. 그들에게 통일, 통일시는 이해와 통찰을 압도하는 감정일 수 있다. 이들과 달리 김준태와 하종오는 분단 후에 태어나 분단체제의 모순이라는 시 창작의 토양에서 자라나 오늘날까지 50년 통일시의 역정(歷程)을 보인 시인들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 시의 나타난 분단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적 층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의 대단결과 남북의 결합

분단 이후 반공은 우리 사회의 근본 환경이며 체제와도 같았다. 이때에 통일이란 실향민 세대들의 눈물어린 사모곡(思母曲)이나 망향가(望鄉歌)로 표현되었다. 사모곡과 망향가가 아닌 분단 인식과 분단극복으로서의 ‘통일’이 시에 드러난 것은, 억압적 정권에 대한 민주화 열망이 들끓던 1970년대를 거쳐 1980년 광주항쟁과 1980년대 후반 진보진영의 통일담론과 맥을 함께한다. 굳어지는 분단체제에 대한 성찰, 분단체제를 악용하는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비판, 그 정권에 의해 탄압 받는 민중의 각성이 통일담론의 기본 조건이 되었으며 민주화 없이는 통일도 민중도 없다는 진보진영의 인식이 ‘통일’을 민족적 지상 과제로 부각시켰다.

4.19 혁명으로 민주화를 이끄는 민중의 힘이 촉발되었지만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는 강고했고 그런 사회에서 통일이란 비현실적인 관념이었다. 1972년 7월 4일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원칙을 천명되었다. 이는 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된 남북 최초의 합의안이었는데 그 조율과 협의 과정은 전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남북공동성명은 반갑고 기쁜 소식 이전에 매우 갑작스러운 ‘발표’였다. 또한 그 성명은 우리민족의 의지와 열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연관된 대아시아정책의 변화나 미소양국의 긴장완화와 같은 복잡한 세계정세에 따라 추진되고 권유된 것이었다. 때문에 선언문은 발표했지만 논의의 진정한 주체이지 못했던 정권이나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지켜볼 뿐이었던 시민사회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방향이 준비될 시간이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공식적으로 천명된 통일 원칙이었으므로 이후 ‘통일’이라는 관념에 대한 내포로 받아들여졌고 갑작스럽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선포된 유신헌법으로 통일의 열기는 급격히 식었고 분단은 여전히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¹⁵⁾ 갑작스레 다가왔다 갑자기 사라진 통일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때부터 분단체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각성이 깊어졌고 이때에 선포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문학에서도 ‘통일’의 전제이자 요소

15) 박광득, “7.4 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통일전략』, 제14권 3호(2014), 13~17쪽. 박광득은 7.4 남북공동성명이 미국의 상황에 의해 추진되었고 박정희 정권이 이를 무시할 수 없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1970년 발표한 대아시아정책인 닉슨독트린, 미소 양국의 긴장완화, 미중 수교와 같은 세계적 데탕트 분위기를 주도하는 미국이 남북한에게도 긴장완화를 묵시적으로 강요했으며 박정희는 1971년 3선 과정에서 드러난 정권의 허약함과 대선공약이었던 통일의 이슈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신체제 폐기, 정권퇴진과 함께 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선언한 1976년 3월 1일의 ‘민주구국선언’, 1979년 3월 1일 재야 민주인사들이 결성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과 같은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분단이 모든 모순의 시작이라는 인식 아래 유신 철폐를 주장하고 민주회복, 즉 민주화가 통일의 선결 조건임에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농민, 노동자, 민중의 삶을 그려내면서 민중문학의 기반을 다지던 가운데 1980년 광주에서는 민중의 민주화 의지를 탄압하며 신군부정권의 희생양이었던 5.18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다. 5.18 광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은 5.18 광주항쟁에 대한 진실규명과 위상 정립, 정치·사회·경제적 민주화운동, 민족통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5.18 광주항쟁 이후 항쟁 주체들이 쏟아낸 수많은 문건과 성명들은¹⁶⁾ 민족통일과 민주화를 같은 반열로 인식하고 해결할 문제로 강조했다.¹⁷⁾ 5.18 광주민중항쟁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인식은¹⁸⁾ 오늘날까지

16) 1983년 5월 22일 민족문제해외동포참가자대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키위한 투쟁방안을 선포한다’, 1984년 2월 24일 기독교청년협의회 ‘우리의 소원은 통일’, 1984년 5월 19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아, 5월이여! 광주여! 영원한 민주화의 불꽃이여!’, 1984년 10월 12일 민주통일국민회의 ‘민주통일의 깃발을 드높이자’, 1985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통일의 그날까지 5.18 정신’으로 등이 대표적이다.

17) 윤선자,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2005), 24~30쪽.

18) 오수열, “5.18정신의 구현과 평화적 민족통일,” 『통일전략』, 제3권 2호(2003), 251~252쪽. “민족분단과 6.25가 해방이후 민족의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보다는 외세와 결탁하여 정권수립에 급급했던 분열세력들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면 5.18은 외세의 묵인하에 정권탈취를 위해 민중탄압을 마다하지 않았던 세력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5.18 정신의 완성은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민족의 통일이 전제되지 않는 5.18 정신의 선양과 계승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굳건한 5.18 정신의 근간이다. 분단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은 반체제운동, 좌익운동으로 치부되어 탄압받았듯이 광주항쟁의 주체들은 용공시비에 휘말려 반체제 인사들의 투옥이 이어졌다. 광주항쟁 역시 민주화의 맥락에서 ‘분단 - 민중의 민주화 열망 탄압 - 민중의 각성과 힘 - 통일’로 이어지는 맥락 위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이 민주화운동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민족통일운동으로 연결되었다.¹⁹⁾

나도야 눕고 당신도야 누워서
 호롱불 밝힌 밤에 그 불빛 끝간 데서
 버드나무들이 버들피리 소리내고
 그 가락 헤아려 남북 산천 푸르러진다면
 우리 아니고 호롱불 높일 이
 누 있으리 저 호롱불 높일 이
 우리 아니면 없건마는
 나도야 눕고 당신도야 누워 서로 팔 베었으니
 저 불빛으로 두 허리 바리바리 묶어서
 버들피리 소리 찾아가 버드나무들을 흔들며
 남북 산천 땡굴면 호롱불도 이밤내 꺼지진 않으리

하중오, 「南男北女」전문²⁰⁾

이 시에서 ‘통일’은 남남북녀의 결합처럼 남북의 산천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버드나무의 흔들림이 내는 버들피리 소리, 그 가락을 헤아려 화답하는 남북의 산천, 서로 팔 베고 허리 감아 땡구는 남북의 남녀의 밤은 통일에 대한 낭만적 은유이다. 갑작스러운 선언이기는 했지만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대단결’은 공식적으로

19)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비평사, 1994), 282~285쪽.

20) 하중오, 『버는 버끼리 피는 피끼리』(창작과비평사, 1981).

인정된 통일원칙이었고 국토의 통합, 남녀의육체적 결합은 ‘민족대단결’의 시적 형상이다. 이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물론 사모곡, 망향가 이상의 통일 논리를 경험하지 못한 당시의 통일시에서 쉽게 발견된다. 김준태는 공사관 막별이 남한 노동자와 공사관 술집 작부 실향민 여인으로 표상되는 민중의 결합을 통해 북한과 통일의 인식을 보여 준다. “내가 밤마다 만나는 北韓女子는 / 내 살덩이를 삼팔선인양 물어뜯으며 흐느낀다 // 육체여, 그날 내려온 북한여자라도 곁에 있으니까” “내 가슴 구석에도 텅비어 있는 황량한 북한땅을 / 남으로 내려온 그녀의 늙은 몸으로나마 채운다”(「北韓女子」 부분²¹⁾)라며 남북의 만남과 통일을 남녀의 육체적 결합으로 표현한다. 또, 남과 북의 통일은 남북의 처녀, 총각에게 신방 하나 차려주며 시작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어서 그들이 합방하면 “오오, 육체의 뒤범벅 너넨한 통일!”(「남북통일론」 부분²²⁾)이 된다고도 했다. “어서 빨리 한복을 입고 기분 좋게 장가가서 / 떡덩어리 같은 아들딸을 낳게 하고 싶어라 / 남한땅의 우리들이 언제나 언제나 그림도록”(「북한땅」²³⁾)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민중의 일상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육감적 표현이나 비속어 등을 활용한 김준태 시의 특징과도 연관이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다분히 낭만적이고 맹목적인 통합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공소함을 드러내고 있다.²⁴⁾ 이때에 대두된 맹목적인 ‘대단결’, ‘대통합’이 통일이라는 인식, 남북의 통일을 남녀의 국토의 육체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2019년 4.27 판문점 선언을 즈음하여 발표된 최근의 시와 미술 등에서

21)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창작과비평사, 1977), 112~113쪽.

22) 김준태, 「남북통일론」, 『넋통일』(전예원, 1986), 41~42쪽.

23) 김준태, 위의 책, 22쪽.

24) 이상숙, “김준태의 시에 나타난 ‘통일 담론’,” 516~519쪽.

도 확인된다.²⁵⁾

남북의 국토가 합쳐지고 남북의 남녀가 만나는 것처럼 남과 북이 흥겹고 뜨겁고 기쁘게 만나는 것이 통일이라는 인식은 김준태와 하종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이 시기의 시에만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보통 남남북녀로 지칭하며 남한 사내 북한 아낙의 구도로 통일의 기쁨과 열락을 표현하는 시들이 최근에도 많이 창작된다.²⁶⁾ 일반 상식에서 나온 이러한 구도가 변화하거나 진화하지 않고 아직도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국토를 남녀의 격정적 육체로 표현할 때 얻는 정서 고양의 효과가 있지만 국토, 민족, 남북이 남남북녀의 이미지로 굳어져 7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은 문학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분단의 질곡일 수 있다. 시라는 감성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내포와 이미지를 가진 남성성과 여성성이 고정되는 문제와 남녀의 관계와 위계성이 남북의 경제적 차이에 의한 위계로 전환되는 문제는 모두 우려할 만하다.

25)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여 출간한 통일시집 『도보다리에서 울다 웃다』에 실린 신학철의 작품 「소원」이 대표적이다.



26) 『도보다리에서 울다 웃다』에서도 여러 편 확인할 수 있다.

3. 민중의 5월은 통일의 6월로

1980년 광주항쟁 이후의 통일시에서는 광주정신과 통일이 직결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광주의 학살은 민중의 민주화 열망에 대한 탄압이고 그것은 분단 체제를 이용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민중이 중심이 되어 분단체제를 부수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와 분단을 극복하는 민중의 확대된 모습으로서의 민족은 통일된 한반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합쳐진 것이다. ‘분단-민중의 민주화 열망 탄압-민중의 각성과 힘-통일’의 논리 과정에서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로 부상한 ‘통일’은 김준태와 하종오의 시에도 선명하게 적용된다.

80년 5월은 처절한 죽음이었다. 해방 이후 가장 처절한 죽음이요, 죽임이었다. 그러나 80년 5월은 그 죽음과 죽임의 싸움 속에서, 어찌면 차라리 예술이었다. 항쟁 기간 동안에 광주시민들이 전개하였던 인간성의 극치, 민족성의 극치, 공동체정신의 극치, “여기 하나되어 살고 있음”의 극치를 보여준 너무도 슬픈 예술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일어서야 하는가”를 보여준, 깨우침의 극치였다. <중략>

분단의 산물을 보자. 우리 사회에 야기되어있는 모든 경제악·정치악·문화악·사회악은 바로 분단의 산물인 경우가 태반이다. 바른 경제, 바른 정치, 바른 문화, 바른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들의 발목을 뒤틀어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분단이 아니고 그 무엇일까. 이 땅의 모든 뜻을 저버린 분단주의, 분단의 악영향은 80년 대만 놓고 보더라도 5월 광주가 그것이 아니었던가.²⁷⁾

김준태를 비롯한 당시 민주진영, 민중예술진영에서는 광주 역시 모든 악의 근원인 분단의 산물이기에 광주의 극복과 치유는 통일로 귀결

27) 김준태, “80년대 민중문학,” 『5월과 문학』(남풍, 1988), 125~127쪽.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민족 간에 억압과 저항은 한국전쟁 상황만이 아니며 남과 북의 대치만이 아니다. 분단의 영속화를 피하는 세력과 분단을 깨트리려는 이들 사이의 싸움이 되고 있었고 그것은 곧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김준태는 “아아, 우리여 왜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야 하느냐 잡아 먹어야 하느냐 / 왜 우리는 역사에 곧잘 절망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 똥개같이 떠벌 떠벌거려야 하느냐”며 탄식하고 남북의 민중으로 확대된 민족의 이름으로 뭉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우리여 우리여, 우리들이여! 하나밖에 없는 / 우리들이여 눈보라여 주먹이여 깨뜨려 질 수 없는 핏덩이여!”(『탄식』²⁸⁾)라고 외쳤다.

울지말자
 바보처럼 울지 말자
 어둠이여 그러나
 참된 어둠이여
 어둠의 어둠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 때부터
 얼마나 징징 울어 왔더냐
 고려 때부터 얼마나 울었더냐
 조선 5백년 동안 얼마나 울었더냐
 그리고 해방 이후 얼마나 울고 울었더냐
 울지 말자 이제 바보처럼
 정말 바보 원숭이처럼 울지 말자
 우리는 5천년 동안 너무나 울었다
 어둠이여 오오, 참어둠이여
 어둠 속에 반짝이는

28) 김준태 시, 홍성담 편화, 『탄식』, 『오월에서 통일로』(빛고을출판사, 1989).

힘의 불빛이여 힘의 노래여
 우리는 이제 어깨에 힘을 주자
 우리는 이제 눈알에 힘을 주자
 우리는 이제 발바닥에 힘을 주자
 우리는 이제 양심에 힘을 주자
 우리는 이제 진리에 힘을 주자
 우리는 이제 꽃피는 나무에 힘을 주자
 우리는 이제 흐르는 세월에 힘을 주자
 우리는 이제 총칼이 아닌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에 힘을 주자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달리는 야간열차 속에서 몸부림쳐야 한다
 오로지 민족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굳센 하늘을 위하여.

김준태, 「야간열차 속에서」 전문²⁹⁾

김준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둠 속을 달리는 야간열차에 비유한다. 우리 민족은 5천 년간 이어진 역사의 어둠 속에 징징 울기만 했던 바보 같고 원숭이 같았다. 신라, 백제 때도 조선, 해방 때에도 꾀박에 울고 침략에 울었지만 이제 우리 민중은 어둠과 울음 속에서 ‘힘’을 주는 노래와 불빛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중을 억압하고 민중의 목숨을 빼앗았던 ‘총칼’이 아닌 모든 것, 어깨, 눈알, 발바닥, 양심, 진리, 나무, 세월과 같은 모든 것에 힘을 주라고 한다. 권유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다. 역사에 짓눌린 민중은 울음을 멈추고 어둠을 뚫고 달리는 야간열차처럼 몸부림치듯 깨어나 스스로의 불빛과 노래를 인

29) 이 시는 『국밥과 희망』(풀빛, 1984), 『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실천문학사, 1988), 김준태 시, 홍성담 편역 『오월에서 통일로』(빛고을출판사, 1989)에 거듭 수록되었다.

식해야 하고 그 힘으로 몸과 정신과 시대와 역사의 환유인 ‘어깨, 눈알, 발바닥, 양심, 진리, 나무, 세월’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목표와 지향점은 “오로지 민족 통일”, “민족의 굳센 하늘”이다. 억압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민중의 각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민족의 통일과 지향을 위한 것이라는 비약은 당시 민중시의 전형적 논리 구조이다.

“참목숨, 참살림 통일 하라 /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우리에게 / 온몸이 사람이 되어서 드러나는 광주여!”(김준태, 『광주여, 역사통일 하라』³⁰⁾), “우리는 가고 있다 / 생죽임의 역사를 뚫고 / <중략> / 無等에서 白頭까지 / 오라! 南으로, 가자! 北으로”(김준태, 『오월에서 통일로』³¹⁾)처럼 광주는 ‘생죽임’의 참극을 극복하고 민족의 ‘목숨’과 민족의 ‘살림’을 통합하여 이르는 모순없는 지선(至善)의 상태로 인식한다. 관화가 홍성담과 함께 『오월에서 통일로』에서 보듯 당시 진보진영, 민중문학계에서 광주민주화항쟁은 치밀한 논리적 과정 없이 통일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중의 민주화 의지를 탄압하고 생명을 빼앗은 광주가 여전히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했던 당시에 김준태와 하종오의 시 창작은 분단으로 희생된 원혼과 광주의 원혼을 위무(慰撫)하는 진혼곡(鎮魂曲)으로 시작하여 통일 염원과 통일 의지로 수렴되었다. 김준태의 『넋통일』(1986), 『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1988), 『오월에서 통일로』(1989)와 하종오의 『사월에서 오월로』(1984), 『넋이여 너이로다』(1986), 『분단동이 아버지들하고 통일동이 아들들하고』(1986) 등이 여

30) 김준태, 『넋통일』.

31) 김준태 시, 홍성담 관화, 『오월에서 통일로』, 『오월에서 통일로』.

기에 해당한다.

하종오의 시 「통일굿」³²⁾은 통일 후 ‘어떤 곳’에서 통일날을 기념하는 무당굿 상황을 설정한다. ‘사변통에 싸웠던 사람들’, ‘사변통에 헤어졌던 사람들’에게 분단살이 어떠했는지, 독재 외세에 시절 어떠했는지를 물으며 이제는 그 세월 물러가고 통일된 그날이라며 원한의 혼령들을 위로한다.

어얼싸 고맙고 기쁘구나
해마다 통일날 있어 이리 모셔주니
피멍든 녀들 만면회색 아니시리
이쪽 총 맞고 죽은 녀 저쪽 총 맞고 죽은 녀
사일구 혁명 때 죽은 녀 아무 곳에서 죽은 녀
즐거워라 이 정성 받으니 이젠 통일녘이라
<중략>
남남아 북녀야 분단살이가, 어떻던고
아이구 야야 말도 마라 분단살이 말도 마라
식민지로 살 때도 원한이 많았지만
나뉜 땅에 살아보니 더더욱 설움 많더라
원수였구나 원수였구나 휴전선이 원수였구나
흰옷 입은 너희가 서로 미워 찢어졌나
사랑하던 너희가 등돌려 헤어졌나

32) 1983년 신동엽창작기금을 받은 하종오는 그 결과물로 시집 『녘이야 녘이로다』(창작사, 1986)는 펴냈다. 이 시집은 신동엽 시인 기일의 시인곳에서 시작하여 통일굿, 오월굿, 반핵굿, 노동굿, 열사굿 등 12개의 굿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한 있는 혼령을 부르고 초혼, 사설, 춤의 진행에 따라 혼을 위로하는 굿의 과정을 시로 표현했다. 하종오는 시집 『녘이야 녘이로다』의 후기(後記)에서 “참으로 한 시대의 역사적 무명(無明)의 현장에서 결연히 살다 죽은 그리운 녘들과 살아 남은 사람들이 만나서, 다음 시대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로 통일된 민주의 삶을 예감하고 준비하는 무기가 되고 굿이 될 것을 비손한다”고 했다.

미국제 소련제 총칼이 동강냈지
 남남아 북녀야 이제 만난 남남북녀야
 곱디곱던 얼굴이 기다림에 주름지고
 검디검던 머리칼이 그리움에 희어지고
 이쪽 저쪽 살다보니 낯설기는 하겠지만
 나라가 하나 되고 땅이 하나 됐으니
 오늘은 불끄고 첫날밤이거라
 내일부터 해 뜨면 논밭에 가야 된단다

하종오, 「통일굿」 부분³³⁾

하종오는 1984년 7월 신경림, 정희성과 함께 ‘민요연구회’를 발족했고 마당극 공연을 위해 굿시를 쓰기 시작하여 시와 무속연희가 만나는 새로운 굿시 12편을 썼는데 이 시는 그중 하나이다. 1980년대는 마당극, 굿, 농악 등 민중예술로 재평가되고 활발히 공연되었는데 이 시집은 굿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실제 굿판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이쪽 총’, ‘저쪽 총’은 한국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4.19, 5.18 등 남북, 남남 간에 벌어진 ‘피멍든’ 역사의 비유이다. 분단의 원혼들은 통일된 ‘통일 후 아무 때’, ‘통일 후 아무 곳’에서 벌어지는 굿판에 불러 나오는 것만으로 그들의 넋은 ‘통일넋’이 된다. 하종오는 “검은 땅에 주리던 백성 어둠던 나라에 슬픈 백성 / 금일에는 회고 밝은 나라땅에 기쁜 만세백성”, “그동안에 등지고 어둠 속에 떠돌았어도 / 이제부턴 햇빛 속에 한세월 안아야 하리” “이쪽 저쪽 살다보니 낯설기는 하겠지만 / 나라가 하나 되고 땅이 하나 됐으니”라며 통일을 남과 북의 합쳐진 국토와 합쳐진 사람들로 표현했다. 이때의 남남북녀 사람들은 식민지로 고통받다 외세로 인해 억지로 갈라져 살던 공동운명체 ‘우리 둘’이

33) 하종오, 「통일굿」, 『넋이야 넋이로다』.

며 “흉년에 아반도주하던 농민”, “공장에서 쫓겨나 이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이다. 민중의 시각에서 우리민족의 수난 역사를 성찰하고 분단으로 심화된 민중에 대한 꺾박이 통일로 극복될 것이라는 인식 즉 민족적 현실과 민중적 삶을 일치시키는 시각으로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을 제안하는 것은 1980년대 통일담론의 전형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통일시 주제가 되는 ‘당위적 통일론’의 과정이자 결과가 된다. 당위적 통일론은 내용과 주제의 공소함과 함께 통일 과정에서 맞닥뜨릴 무수한 충돌, 갈등, 차이를 가볍게 치부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종족의 동일성에 바탕을 둔 이른바 당위적 통일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남북 간의 차이를 간과하여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한다.³⁴⁾ 김준태와 하종오의 시에서도 나타났던 1980년대 민중을 민족으로 일치시키고³⁵⁾ 민족단위의 민주화를 통일로 연결하는 이 사고와 인식의 과정에는 아직 통일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 가야 할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 그리고 통일을 만드는 공동 주체인 북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하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4. 오늘의 ‘통일’,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가

5.18에서 촉발되어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통일 담론은 진보진영, 민족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폭발적 힘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1980년

34)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창비, 2006), 283~284쪽.

35)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 『민족문학사연구』, 제56호(2014), 401쪽.

대의 상황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냉전구도의 붕괴와 소련 연방 해체되었고 남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해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체제 불안과 경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뜨겁고 흥겨운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이 순수하게 통일을 반기기에는 남북의 격차와 이질감은 너무나 커졌고 남한 사람들의 ‘통일’, ‘북한’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도 아니고 정권 최고위층이 선포하여 이루어지는 ‘민족적 사건’도 아닌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삶의 국면이자 과정이 되었다. 두 정치체제가 합쳐지는 사건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통일의 관념은 탈분단, 통합, 공존으로 바뀌고 민족대신 인권, 평화, 환경, 복지 등의 보편적 가치가 통일의 가치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의견³⁶⁾ 이미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었지만 시문학에서 분단문학이 아닌 통일문학의 변화와 진화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1990년대 중반 자연, 경제, 식량 대위기를 겪으며 대량 탈북자가 발생했고 이들은 남한에서 하층 노동 계층을 형성하며 낮은 자본주의에 힘겹게 적응하고 있다. 남한의 고도화되는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경제적 차이로 남북 주민 사이의 위계를 내재화하여 북한, 북한 주민, 통일을 경제적 문제, 사회 계층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시는 여전히 철조망을 걷고 남북이 만나 통곡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 분단 70년 한 맺힌 마음을 걱정적으로 토로하는 시, 남과 북의 혈족애, 형제애를 정서적으로 강조하는 시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5.18 광주, 6.10 항쟁 등의 뚜렷한 지향과 이슈로 통일시가 논리의 비약과 획일성

36) 조영주, “통일 담론과 여성의 실천,” 『북한학연구』, 제8권 2호(2012), 249쪽.

을 보인 것도 문제적이지만 그 이후 그나마의 방향성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혈육애, 형제애의 느껴움과 백두산 천지에서 느끼는 감격³⁷⁾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같이 국가 주도의 선언과 행사에 고무되어 쏟아내는 높은 목소리의 행사시 역시 조금은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 달라진 현실에 달라진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살피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로 하여 알게 됐단다
 이제는 할아버지도 먼저 길게 휘어지면서
 직선과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네 어미처럼 너를 껴안듯이 보듬어 올린다
 서울과 평양도 첫사랑 첫 얼굴로 바라보고
 <중략>

아 풀비린내도 없이 온몸 살결이 향기로운
 통일코리아 텍스트 밤낮으로 꿈꾸는 아가야
 그래서 나도 너처럼 똥을 바가지로 싸놓고도
 방긋방긋 웃는 별거숭이 아가가 되고 싶단다.

김준태, 「60년 聖事」 부분³⁸⁾

이 시는 쌍둥이의 할아버지인 시인이 “빛도 휘고 하늘도 휘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접하고 쓴 시이다. 빛이 휘어지고 하늘도 휘어지는 것처럼 직선으로만 대치하던 남과 북도 ‘휘어지며 껴안듯 보듬어 올리고’, “서울과 평양도 첫사랑 첫얼굴로 바라보”며 통일

37) 1992년 중국 수교 후 우리 국민의 백두산 관광과 접경지역 관광 등이 가능해지면 서 우리 시에는 백두산 기행 시편이 많아졌다.

38) 김준태, 「60년 성사(聖事)」, 『창작과 비평』, 제141호(2008).

을 꿈꾸는 천진함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 이후 김준태는 다 른 시 「하늘도 휘고, 좋다」³⁹⁾와 매체 인터뷰⁴⁰⁾들을 통해 빛도 휘고 하늘도 휘는 우주의 진리를 따라 서로 둥글게 휘어져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여전히 낭만적이고 관념적 통일인식이다.

서로 엮어 달라는 쌍둥이를 같이 엮어 주니 “두 놈이 같이 기분 좋아라 웃는다 / 남과 북도 그랬으면 좋겠다”(「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⁴¹⁾)나 동네 목욕탕에서 어린 동생을 씻겨주는 형의 모습을 보고 ““형제여! 늙어 죽는 날까지 서로 그렇게 살아라!” /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눈물방울을 떨구고 말았다”(「형제」⁴²⁾)는 시에서 보듯 김준태는 여전히 민족애, 혈육애, 형제애를 맴돌며 민족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당위적 통일론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를 봐요!

서울과 평양 사이
녹슨 가시철조망 속에
저 먼 먼 하늘에서
달걀 하나 내려오네요

70년을 피와 눈물로 품은
오, 젖은 흰옷으로 닦아낸
배달겨레의 둥근 달걀하나!

39) 김준태, 「하늘도 휘고, 좋다」, 『시인수첩』, 제3호(2011).

40) 김준태, “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시의 화두는 사람과 생명과 통일,” 『문예운동』, 제130호(2016), 110~114쪽.

41) 김준태,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도서출판 b, 2018).

42) 김준태,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밖에서 남녘땅 닭이 쪼고
안에서 북녘땅 닭이 쪼니
노오란 봄병아리가 나온다

어, 등근 달걀 하나에서
7,500만 마리 병아리가
오종종 오종종 걸어나온다!

수탉은 해를 치며
70년 만에 새벽하늘을 열고
좋다, 바야흐로 즐락동시라!

김준태, 「좋다. 즐락동시(倅啄同時)라!」 전문⁴³⁾

이 시는 어미닭과 알 안의 병아리가 함께 쪼아 알에서 깨어나는 탄생의 순간인 즐락동시(倅啄同時)에 비유하여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과 평양, 철조망, 닭, 병아리, 수탉의 해에 열리는 새벽하늘 등의 이미지는 통일시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온 이미지이다. 통일은 하나로 합쳐지는 민족적 이벤트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과정이다. 또 낱알이 변화하는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살펴볼 때 여전히 ‘민족의 대단결’로서 형제애와 혈육애의 북받치는 감정으로 통일을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통일은 더 이상 남한과 북한 주민만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은 탈북인, 이주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확대된 한국인들의 삶에 작용하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변화이다. 따라서 그 문학적 형상화는 진중한 통찰과 침묵하고 섬세한 삶의 국면을 포착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00년 공동선언, 2007년 정상회담이 있었고 2018년 판문점 선언으

43) 김준태, 「좋다. 즐락동시(倅啄同時)라!」,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로 남북의 화해, 평화, 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그사이에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충돌로 남북관계는 꽤 높은 긴장에 놓이기도 했다. 남북 관계의 변화와 지도층의 행보에 따라 대중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통일의 의미는 변화한다.⁴⁴⁾ 당문학, 정책 문학을 표방하는 북한의 시와 문학은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만 우리 시는 즉각적인 현실을 담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분단이 민족의 삶과 시간을 옥죄며 운명을 바꾸었던 통일 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시 또한 그 삶과 마음의 변화에 민감하고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한다.

먼저 북한이라는 통일의 공동 주체인 남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남과 북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남, 북북 사이, 즉 자신들에 대한 명철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화된 통일인식, 통일에 대한 감정, 자신과 서로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⁴⁵⁾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보듯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닌 평화를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그 평화가 깃들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찾고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 시와 문학의 역할이다.

하종오는 자본과 노동 주제에 집중하면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

44) 양문수·이우영·이하연,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연구』, 제28권 1호(2019), 105~133쪽.

45) 구본상·최준영,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하에서의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분석: 현대적 성차, 국가 자부심, 통일효용 인식,”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제34권 1호(2019), 43~75쪽.

46) 김학재, “‘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포퓰리즘과 포용의 평화 사회학,” 『경제와 사회』, 제122호(2019), 34~75쪽.

과 노동자, 한국사회에 유입된 이주 한국인들 즉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탈북민, 탈북여성의 삶의 문제로 주제를 확장하는 확장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단 연작으로 부르는 『남북상징어 사전』, 『신북한학』, 『남북주민보고서』와 함께 『세계의 시간』에서는 ‘통일’ 후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을 상상하는 시편들을 제작했다. 통일을 남과 북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것으로 설정한 그의 시편들은 통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이름답게 형상화한 뛰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북한 주민, 탈북민, 탈북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제된 시혜적 자세와 경제적 여건에 의한 위계적 상상은 문제적이다. 북한 주민들이 늘 기아 상태라는 시각, 또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은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삶의 위기를 겪은 이들이라는 시각, 잘사는 남한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어 못하는 북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고용되는 것을 통일의 풍경으로 일관되게 상상하는 것, 남한의 자본과 북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경제대국이 되는 경제적 측면에 치우친 통일관 등이 그것이다.⁴⁷⁾

아무개씨는 쌀을 사러다가 관두고
 햄버거와 콜라를 가족 수대로 사서 들고는
 승근 열차를 타고 과주에서 개풍으로 출근한다

아무개씨 계좌로 입금된 첫 봉급 액수를 떠올리며
 핸드백에서 봉급명세서를 꺼내 살펴본다
 회사에서 세금을 떼어 남한에 냈는데

47) 이상숙, “하종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 형상,” 『여성문학연구』, 제46호(2019); 이상숙, “하종오 시에 나타난 통일, 북한, 북한주민,” 『아시아문화연구소』, 제49집(2019).

은행에서 돈을 찾아 북한에서 쓰면 되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도 무척 만족스럽다

차창 밖 가을 풍경을 내다보며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개 씨뿐만 아니라 좌석에 앉아서
첫 봉급으로 산 선물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퇴근하는 북한 노동자들 모두 다다

정시에 출발한 통근 열차가
들판을 가로지르다가 강을 따라가다가
산모퉁이를 돌다가 산골짜기로 들어가다가
마을마다 북한 노동자들을 내려놓고 달릴 때
아무개 씨는 허기지던 날들의 눈물을 다시 툇, 흘린다.

하종오, 「아무개씨의 퇴근-상상도」부분⁴⁸⁾

이 시는 파주에서 개풍으로 출퇴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통근 열차 풍경을 그렸다. 파주 공장에서 받은 첫 봉급으로 쌀 대신 햄버거와 콜라를 사들고 퇴근하면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일 것이며 과거에 허기지던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 흘릴 것이라고 상상한다. 북한은 노동자 공급처이며 북한 주민은 허기에 시달리는 노동자라는 시선은 하종오의 여러 시편에서 발견된다. 북한,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상상은 소중하지만 그 상상이 간혀 있는 편견과 한계 또한 드러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싸고
말을 알아듣는 북한 노동자를
공장에 보내준다면

48) 하종오, 「아무개씨의 퇴근」, 『남북상징어사전』(실천문학사, 2011).

쌍수를 흔들겠다.

특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을 많이 준다 해도
북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라면 해볼만하다고
채수봉씨는 계산한다
돈을 남들보다 더 벌어야 행복한 시대에
남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남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북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절대로 손해 보지 않을 사업인데
다같이 윈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을 뿐

하종오, 「행복한 시대에」부분⁴⁹⁾

이 시에서 ‘채수봉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측면에서 서로 이득인데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북의 특별한 상황이다. 첨단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남한 공장 사장 채수봉 씨에게 북한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싸고 / 말을 알아듣는” 노동자일 뿐이다. 세계라는 노동과 자본 시장에서 북한 노동자는 가장 낮은 임금을 쥐도 되는 싼 노동자쯤으로 생각하는 남한의 보통 사람들에게 ‘분단과 통일’은 서로 손해 보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일 뿐이다. 북한 주민들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등한 상대이자 주체라는 인식을 채수봉 씨에게 기대할 수 없다. 하종오는 분단이 야기한 남북 간의 자본 생태계와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제한적인 시각을 비판적으로 보여 주었다. 소득수준에 의해 위계적으로 형성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관계, 그것이 미칠 통일 후 우리의 일상은 뜨겁고 흥겨운 통일마당의 모습일 수 없다. 가시화되는 통일의 국면에서 이러

49) 하종오, 「행복한 시대에」, 『세계의 시간』(도서출판 b, 2013).

한 위계와 계층화는 실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인 것인데 하종오는 자본과 노동의 흐름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포착한 공과 함께 그 모순을 연민의 시선으로 가두는 스스로의 한계 또한 보여 주었다. 사모곡, 망향가의 개인사적 통일의 열망과 남녀의 걱정적 결합으로 단순화되었던 이전의 당위적 통일론은 오늘날에도 혈육애, 형제애의 틀로 바뀌어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통일의 당사자이자 후속 문제를 헤쳐 나갈 당사자인 보통 사람들에게 통일은 혈육애라는 당위성과 경제라는 현실적 문제가 뒤섞이는 난제로 등장한다.

하종오씨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나서 가장 걱정한 것은
 만약 남북 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자신을 만나러 내려오는 일이라고 했다
 혹시나 강원도 야산에 올라가 보자고 채근하면
 혹시나 북한에서 가난에 너무나 개고생을 하여서
 강원도 야산을 팔아 돈 챙겨서 돌아가겠다고 하면
 사업의 흥망을 이해되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 날에 기껏 내놓고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왜 자식만 이남에 두고 이북으로 갔느냐고 반문하는 일이라고 했다.
 하종오, 「이산가족 하종오씨의 인상깊은 이야기」 부분⁵⁰⁾

이산가족은 탈분단, 통일의 가장 핵심적 이유인데 이 시의 ‘이산가족 하종오씨’는 통일 후 부모를 만날 일을 걱정한다. 하종오는 많은 시편에서 통일을 ‘남북 간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일 것이다. 남북의 복잡다기

50) 하종오, 「이산가족 하종오 씨의 인상 깊은 이야기」, 『남북상징어사전』.

한 정치·사회·문화적 결합으로써 현재 상상 가능한 통일은 ‘남북 간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통일 연착륙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의 남한 주민 ‘이산가족 하종오 씨’는 부모님과과의 상봉에 느껴워하기에 앞서 가산(家産)을 팔아버린 일을 걱정한다. 북한에서 살았을 테니 부모는 가난으로 고생했을 것이고 그러니 남에 들른 부모는 강원도 야산을 팔겠다 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 단정 끝에 ‘이산가족 하종오 씨’는 “왜 자식만 이남에 두고 이복으로 갔느냐” 반문하리라 마음먹는 풍경이 쓸쓸하다.

이 시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굶주리며 고생했을 것이라는 전제, 가난한 부모는 남한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라는 전제, 땅을 팔아버린 나는 수십 년 만에 만나 부모에게 부모 노릇 못했다 대거리할 것이라는 전제가 그것이다. 남과 북에 두고 온 가족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서로 이해시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을 것이고 부모 자식의 애끓는 천륜(天倫)도 경제, 살림살이, 돈으로 재편되리라는 하종오의 예상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식적 편견을 비판하고 보통 사람들의 통일에서 적용될 경제나 돈 이상의 가치와 관계에 대한 시적 통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휴전 전에 고향을 떠난 ‘하종오씨’는 이제 ‘이남 출신’이 되어 내비게이션을 치고 고향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마음에 담아둔 지리와는 /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다” 고향의 산천도 사람도 모두 달라졌다. 하종오씨에게 고향 땅은 “발을 내디디면, 허방”(하종오, 『이남출신 하종오씨의 귀향』⁵¹⁾)인 곳에 되어 있었다. 이처럼 자유로이 왕래하는

51) 하종오, 「이남출신 하종오씨의 귀향」, 『남북상징어사전』.

수준의 통일이라도 실제 경험하는 통일살이에는 수많은 ‘허방’이 있을 것이다. 70여 년의 시간과 대치와 반목으로 경쟁해 온 남북이 분단을 넘어서 탈분단의 다른 이름 통일로 나아갈 때 김준태식의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소원과 주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매우 거대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이 뒤엉켜 있을 것이다. 통일은 정치, 법,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서와 마음이 다치고 변화하는 과정이기에 그것을 이르며 위로하며 가는 정서적 도정(道程)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종오 시에서 비판되었으면서도 스스로 간혀 있었던 것처럼 북한,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남과 북, 남과 남, 북과 북 사이의 사람들 마음과 가치에 집중하는 문학적 상상과 통찰이 필요하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김준태와 하종오의 시에 나타난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1970~1980년대 민중문학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현재까지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 시를 꾸준히 발표한 두 시인의 통일시를 통해 우리 시의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변화 과정과 현재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통일시를 쓴 시인들은 민족사를 민중, 농민, 노동자의 죽음의 역사로 이해하여 분단을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민중을 민족과 일치시켰고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민족대단결은 당시 통일시의 전형적 주제이며 소재이며 형식이 되었다. 두 시인 도한 마찬가지였다. 민중의 죽음으로 분단과 민주 탄압을 형상화하고 주로 남녀의 격정적 결합으로 남북의 통일을 표현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폭발한 민중의 힘이 1980년대 후

반 통일담론으로 이어지며 통일은 진영논리와 사회담론으로 확장되었다. ‘분단-민중의 민주화 열망 탄압-민중의 각성과 힘-통일’이라는 논리구조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진영논리와 사회적 이슈에 결부된 ‘통일 인식’은 관념적인 지향과 선언의 한계를 보였다. 김준태는 광주정신을 통일정신으로 확장하며 민중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로 직결되고 혈육애와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당위적이고 정서적 통일을 창작했고 그 기조는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다.

냉전 구도가 와해되고 사회주의 연방이 해체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경제성장을 이루며 역동적 사회 변화를 겪었다. 반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과 경제 제재, 핵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며 남한과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다. 하종오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와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 탈북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한국인의 범주를 설정했고 그 시각을 유지하며 통일의 의미를 찾는 시 창작을 보여 주었다. 또 서로의 왕래가 가능해지는 통일 후에 일어날 남북 주민의 생활과 일상을 상상하며 관념적이었던 통일의 구체적 모습을 상상하는 통찰력을 보였다. 그의 시에는 분단이 야기한 편견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생긴 남북 간의 위계적 시선과 계층적 사고가 비판적으로 제시되면서도 시인 스스로 그 한계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도 드러내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통일 혹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은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나 선언에 이어지는 걱정과 관념적 수사의 행사 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남북은 물론 남남과 북북 구성원에 대한 이해, 즉 통일을 맞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필요하다. 하종오

가 예상하듯 통일 도정에서 만날 수많은 ‘허방’을 상상하고 그때 보통 사람들이 가질 마음과 행동을 형상화하는 시적 통찰력이 오늘의 통일 시에 절실히 필요하다.

■ 접수: 7월 11일 / 수정: 8월 9일 / 채택: 8월 12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비평사, 1994).
- 김광섭 외, 『어서 너는 내게로 오라』(월간문학 출판부, 2003).
- 김윤환·박희호·송문헌·이적 외, 『분단과 통일시』(화남, 2007).
- 김재홍, 홍용희 엮음, 『그날이 오늘이라면』(청동거울, 1999).
- 김준태, 『국밥과 희망』(풀빛, 1984).
- _____, 『뉘통일』(전예월, 1986).
- _____, 『불아냐 꽃아냐』(청사, 1986).
- _____, 『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실천문학사, 1988).
- _____, 김준태 시, 홍성담 관화, 관화시집 『오월에서 통일로』(빛고을 출판사, 1989).
- _____, 『통일을 꿈꾸는 슬픈 색주가』(미래사, 1991).
- _____,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도서출판 b).
- _____, 평론집 『5월과 문학』(남풍, 1988).
- _____, 통일시선집 『백두산아 훨훨 날아라』(글누리, 2007).
- _____, 관문점 선언 기념 통일시선집 『도보다리에서 울고 웃다』(작가, 2018).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엮음, 『말하라 백두산 천지여』(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7).
-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창비, 2006).
- 이기형 엮음, 『그날의 아름다운 만남』(살림터, 2000).
- 하중오,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창작과 비평사, 1981).
- _____, 『사월에서 오월로』(창작과 비평사, 1984).
- _____, 『분단동이 아버지하고 통일동이 아들들하고』(실천문학사, 1986).
- _____, 『국경없는 공장』(삶이보이는창, 2007).
- _____, 『아시아계 한국인들』(삶이보이는창, 2007).
- _____, 『입국자들』(산지니, 2009).
- _____, 『신북한학』(책만드는 집, 2012).

2) 논문

- 고명철, “제국(諸國)의 공존, 제국(帝國)의 부재,” 『제국: 제국(諸國) 또는 제국(帝國)』(문학동네, 2011).
- 구본상·최준영,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하에서의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분석: 현대적 성차, 국가 자부심, 통일효용 인식,” 『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제34권 1호(2019), 43~75쪽.
- 김명인, “소멸의 길과 생명의 꽃,” 『문학과사회』, 제29호(1995), 118~130쪽.
- 김주연, “비생명 시대의 생명: 김준태의 농민시를 읽으며,” 시집 『칼과 흙』(문학과지성사, 1989).
- 김준태, “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내 시의 화두는 사람과 생명과 통일,” 『문예운동』, 제130호(2016), 93~114쪽.
- 김진희, “밭, 시와 역사의 지평,” 시집 『지평선에 서서』(문학과지성사, 1999).
- 김치수, “고향의 의미,” 시집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한마당, 1981).
- 김학재, “‘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포퓰리즘과 포용의 평화 사회학,” 『경제와 사회』, 제122호(2019), 34~75쪽.
- 나종영, “민족과 대지를 온몸으로 노래한 순결의 시,” 시집 『칼과 흙』(문학과지성사, 1989).
- 노지영, “탈분단 연작시집 3부작, ‘너나들이’의 이야기시,” 『남북주민보고서』(도서출판 b, 2013).
-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 『국제어문』, 제44집(2008), 281~301쪽.
- _____, “분단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8집(2015), 47~67쪽.
- _____, “정직의 시학: 김준태론,” 『우리문학연구』, 제30호(2010), 291~314쪽.
- _____, “하종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1집(2011), 265~286쪽.
- 박광득, “7.4 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통일전략』, 제14권 3호(2014), 9~39쪽.
- 박윤우,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다문화사회의 가치인식 방법연구,” 『구보학보』, 제18집(2018), 519~550쪽.

- 박지혜, “하종오의 시 세계에 나타난 다문화와 그 인식의 한계,” 『철학과 문화』, 제23집(2011), 33~53쪽.
- 백지윤, “한국현대시의 다문화 수용 양상: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양문수·이우영·이하연,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2019), 105~133쪽.
- 오수열, “5.18정신의 구현과 평화적 민족통일,” 『통일전략』, 제3권 2호(2003), 239~256쪽.
- 오창은, “1970년대 ‘환유적 시론’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제30권 2호(2002), 213~231쪽.
- 윤선자,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2005), 79~110쪽.
- 이동순, “분단시대 시의 꿈과 정치적 신화,” 『창작과비평』, 제65호(1989).
- 이상숙, “김준태의 시에 나타난 ‘통일 담론,’” 『우리문학연구』, 제63집(2019), 511쪽~536쪽.
- _____, “하종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 형상,” 『여성문학연구』, 제46호(2019), 255~288쪽.
- _____, “하종오 시에 나타난 통일, 북한, 북한주민,” 『아시아문화연구소』, 제49집(2019), 125~157쪽.
- 이항직, “‘5월시’의 사회적 형성,” 『현상과 인식』, 제75호(1998), 65~92쪽.
- 임현영·이근배·이상숙 좌담, “한국현대시100주년 ‘통일시’조명,” 『통일과 문학』, 제2호(2008), 104~123쪽.
- 장성규,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 탈분단시의 가능성,” 『남북상징어사전』(실천문학사, 2011).
- 전동진, “오월의 시학 시론(試論)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3호(2013), 37~72쪽.
- 조영주, “통일 담론과 여성의 실천,” 『북한학연구』, 제8권 2호(2012), 247~279쪽.
- 조태일, “민중언어의 발견,” 『창작과비평』, 제23호(1972), 81~94쪽.
- 조태일, “발문,” 시집 『참깨를 털면서』(창작과비평사, 1977).

차성연, “지구 공통의 시간, ‘탈분단’을 상상하는 ‘차이’의 시간,” 『세계의 시간』(도서출판 b, 2013).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1),” 『민족문화사연구』, 제56호(2014), 389~417쪽.

The meaning of “unification” in Jun-tae Kim’s poem and Ha Jonh-oh’s poem

Lee, Sang-Sook(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unification” in Jun-tae Kim’s poems and Ha Jong-oh’s poem. Not many Korean poets have dealt with unification as a recurring theme in their work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However, Juntae Kim and Ha Jong-oh have consistently written about “unification”. Through their poems,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range of perceptions of unification in Korea. “Unification” in their works tends to mirror the debate surrounding the issue at the time a text was written. According to them, the national democratic discourse of the late 1980s led to the emergence of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to widespread debate, but the extent to which this trajectory in national politics was linked to the May 18 Gwangju Pro-democracy Uprising was limited. There have been many problematic approaches to unification in Korean society over the decades, including the romantic strand of thought that regards it

as a necessary and emotional “wish”; the radical and simple idea that Korea’s partition is the basis of all social problems and contradictions, and proposes unification as the ultimate solution. The passive attitude towards unification which arises from the instinct to avoid the plethora of concrete and complex issues involved in the project of unification. The sympathetic attitude towards the North Korean people, which is based on a sense of the South’s economic superiority. This range of attitudes is problematic, but it embodies how South Korea views the issue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unification, Jun-tae Kim’s poem, Ha Jonh-oh’s poem, North Korean people, May 18 Gwangju Pro-democracy Uprising